2022

#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김민성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빚다.

**Dreamy School** 

축이 가르되 너는 먹음이 있고 나는 행항이 있으니 행항이 있는 네 먹음을 내게 보이라는 나는 행항으로 내 먹음을 네게 보이라라

# 至月春日到

# 빚음을 마치며

빛음 기간을 통해 외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성장을 하였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더 성장 해야겠다고 느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를 깨달았다.
앞으로 남은 드리미학교 생활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을 것이다.



#### **ABOUT ME**

김민성 2006.5.16

취미와 관심사로는 헬스와 경제이며 좋아하는 스포츠로는 배구이다.

내가 지키려고 제일 노력하는 말씀으로는"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 셨으니"의 말씀이고 나는 이 성경구절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매일 말씀묵상을 하며살아갈 것이다.

# 목차

1. 사명선언문

7. 정직에세이

2. 타임엔지니어링 소감문

8. 평화에세이

3. 언어빚음 감상문

9. 절제 에세이

4. 신앙에세이

10. 빚음 2단계를 마치며

5. 정의에세이

11. 공동성결 서약문

13. 3P 창의활동 계획서

6. 성결에세이

12. 문제해결 프로젝트

14.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

# 사명선언문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구리를 사랑하나셨습니라 쇼만성서 약대절

# フロレイ



#### 사랑을 베푸는 삶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의 말씀을 따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않고 외면하지 않으며 그 자들을 위해 도와주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



#### 하나님 가정의 가장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5)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가꾸어 나간다.



#### 베푸며 헌신하는 크리스찬 경영인

크리스찬의 경영인으로서 매사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과 얻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사람들에게 베푼다.



1.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사용한다.

2.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도록 말씀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노력한다.

3.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된다.



####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청지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알려준다.

## Action Plan

#### 사랑 나눠주는 삶

- 주변 사람들의 기도제목 을 받아 1주일에 1번 이상 중보기도를 해준다.
- 자원봉사를 1달에 한번 이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알려준다.
  - 공동체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
-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나의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 천신하며 나눌 줄 아는 크리스찬 경영인

-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매일 2~4시간 정도 공부하여 배운다.
- 현 경제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매일 한국 중국 미국 등 선진국 나라의 뉴스들을 보며 각 나라에 현 경제를 공부한다.
  - 심리학과 관련된 사람에 심리에 관련된 책을 1달에 1권씩 읽다.
  - 경제경영학과와 관련된 대학 등을 찾아보고 입시 준비를 한다.

#### 김민성

####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 되어가는 삶

-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20분씩 말씀묵상 시간을 가진다.
-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데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나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간다.

####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가정

-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20분씩 말씀묵상 시간을 가진다.
- 아이를 올바른 자녀로 성장 시킬 수 있도록 육아와 관련된 책을 1달에 1권 읽는다.
-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책을 1달에 1권 읽는다

#### 하나님의 청지기

- 매일 3~4장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 정직한 삶을 살아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
-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접할 수 있도록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 라임엔지니어링 소감문

#### 1강 - 차원에 대해서

나는 시간은 그냥 시간일 뿐 다른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타임엔지니어링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은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정의하는 시간은 사건의 순서를 시간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현재를 1년, 1달, 하루, 1분, 1초로 계속 끝도 없이 나누게 된다면 현재는 거의 없게 되고 과거도 없어진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4차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5차원은 있는지도 몰랐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5차원은 과거가 현재이고 현재가 미래인 것이고 이 5차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 2강 - 시간의 선택성

이사장님께서 "시간은 선택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나의 선택은 나의 옳고 그름에 따라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편히 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있었다.

하지만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편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고생해서 천국에 가 영원히 편히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엄청 기억에 남았다.

나의 집은 이 곳이 아니라 천국인데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곳에서 편히 쉬려고 했던 것이 바보같았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편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건을 선택할 때 그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도록 내 삶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또한 내 미래를 정해 그것의 대한 계획과 구성을 자세히 세워 평생 고생하며 살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편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3강 -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법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 드리미학교도 이사장님의 머리 속에 그려서 지금의 드리미학교가 나온 것이다. 이것처럼 나도 앞으로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머리속에 그려야하고 미래를 정하고 현재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것을 적어서 지금부터 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솔직히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3강을 들으면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가면 진정한 길이있고 섬기는 자리는 낮은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4강 -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하나님의 지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좋아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셨다. 나의 비전을 질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한 내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나는 킬링타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나의 목표를 잡고 그 현실과 목표 까지의 그 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지혜를 보내시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나의 죄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한심한 것 같고 이 죄를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 5강 - 비전과 죄

나는 꿈에 대해서만 생각했지만 그 꿈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비전을 찾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다른 사람들의 머리속에 그 그림을 그려줘서 나와 같은 동역자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나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나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생각으로 죄를 짓는 죄와 마음 속에 죄로 가득차있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 언어빚음 감상뚠

언어빚음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어는 아주 어려운 언어이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많은언어들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한국어는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언어이며 감각적인고 섬세한 언어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어가 정말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그 아름다운 언어를 은어와 비속어로 통일화하여서 사용하고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고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반성하고 더 이상은 아무렇게나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내가 쓰는 나쁜 언어들이 친구들에게 피해가 갈 뿐더러 나에게도 피해가 가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내가 쓰는 언어들을 부모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좋은 말들을 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은어와 비속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해주신 귀한 것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올바르고 제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나의 언어생활을 성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아래있는 항목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 성경책과 같은 책을 읽어 고운 말을 사용한다.
-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 말한다고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한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 한다.
    - 언어의 뜻을 알아보며 사용한다.
  - 기도할때 쓰지 못할 언어들은 평소에도 사용하지않는다.
  - 은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 신앙에세이

나는 지금까지 약 10년동안 교회를 다녔었다. 4학년때 처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때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심은 엄청 좋았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다니는 것이 귀찮아지고 온라인 예배까지 드리게 되니 나의 신앙심은 거의 없는 것과 같았었다.

그 때는 이런생각까지도 했었다. "나중에 늙어서 그 때 하나님 믿고 그 전에는 놀다가 천국가면 되겠지" 등과 같은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형이 드리미학교를 다니면서 바뀌는 모습을 보고 나 또한 좋은 영향을 미쳤었다. 다시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드리미학교에 지원하게 된 것이다.

드리미학교에서 와서 나의 신앙심은 더더욱 커졌다. 드리미학교에 오기 전부터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와 같은 생각도 들었었다. 하지만 주일예배와 복음특강을 들으면서십자가의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것을 알게되자 마음 속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와 같은 저런 생각을 한 것이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몰랐던 내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십자가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이고 십자가 그 곳에는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계신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생각이 들면서 늘 예수님께 감사를 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월 복음사경회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복음사경회를 듣기전에는 나는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하는지 몰랐었다.헌신을 하면 내 맘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나는 헌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3월 복음사경회 때 나의 생각이 확 바뀌었다. 말씀주제는 '헌신하지 마십시 오'였다. 호세아의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풀어나가셨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자면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했고 주님께서 음란한 여자(고멜)와 결혼을 하라고 시키셨다. 고멜은 밖에 나가 3명의 아이를 낳아 집으로 들어오고 결국에는 아이는 두고 돈을 가지고 나갔다. 그리고 팔려가는 고멜은 돈을 주고 산 후 들판에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할 때까지 말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호세아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헌신이란 진짜 무섭고 하지 않는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호세아 이시고, 고멜이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 스치면서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다. 만약 나의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평생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용서 못할 우리들을 늘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없고 어느때나 버려도 되는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희생과 헌신을 용서하시는 것이 나에게 큰 감동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쓰레기와 같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믿으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많이 주셨는데 또 호세아의 아내처럼 용서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게 바보같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호세아의 아내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용서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너무 너무 죄송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 미련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내 마음 속 에서 울렸던 것 같다. 헌신이란 것이 참으로 어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라고 느꼈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 할 것이다.

말씀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다가간 것 같다. 여느때와 같이 말씀 묵상을 드리고 있었다. 4월 6일이었고 말씀구절은 창세기 29장 31절~30장 24절의 말씀이었다. 말씀 내용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아이를 낳아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더 많이 낳았고 이제는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났었고 그 말씀이 내 맘 속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고 떨림이 느껴졌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나는 느끼고 생각했다. 말씀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그냥 들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러한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 지금하는 이음예배시간(말씀묵상)이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내가 살아 가는 방향이 옳은 길 것인지' 등을 말씀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갈 것이다.

# 정의에세이

# 어떤 사람

(소주제: 정의로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닮고싶은 사람)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정직하고 바르고 선한사람? 혹은 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 혹은 정의로운 사람? 등등 많은 생각들을 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사전에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혹은 바른 의의" 라고 나와있다. 사전에서 나와있는 정의의 뜻이 맞긴 하지만 나는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전의 정의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정의이고 내가 말할 진정한 정의는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 것이다.

#### 정의로운 사람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당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이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주겠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물어볼 것이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른 것을 추구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가치기초소양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 해보니 정의란 약자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5~2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 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자(약자)를 돌봐주고 도움을 주고 이익을 볼 생각도 하지말라고 하셨다. 나는 이것이 사랑으로 돌보는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나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내(모두)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저 자기의 생각이 담긴 정의이기 때문이고 매일 매일 죄를 짓는 사람들에 게는 당연히 정의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한 정의이다. 우리는 그 정의를 알기위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정의와 평화가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왜 내가 굳이 약자를 도와줘야하지?" 라는 생각말이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그 뜻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인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난한자(가족)을 돌봐주고 도와주라고 말씀을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기는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진짜 처음보는 얼굴이고 성격도 다르고 만나본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너무 힘들다.

나도 그것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일단 먼저 친한 친구,동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준 후에 그것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한번 경험해본다 면 진짜 어려운 것임을 알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자를 도와줬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정의란 것이 없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은 없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도덕적인 사람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인가?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위해 노력을 했는가? 당신의 도덕수준은 몇 단계인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내가 가치기초소양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설명하겠다. 지금 설명하는 도덕적인 기준은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다.

####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1단계: 타율적 도덕 단계: 처벌 고려

2단계: 개인주의: 보상과 자신의 이득 고려

3단계: 대인 간 기대 단계: 타인의 시선과 평판 고려 4단계: 사회 시스템 도덕 단계: 법, 질서, 규칙, 고려

5단계: 개인의 권리 및 사회 계약 단계: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인간의 가치 존중 고려

6단계: 보편적 윤리적 원칙 단계: 양심을 토대로 추상적인 원칙 고려

당신은 여기서 도덕적인 기준은 몇단계인가? 나는 아직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단계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덕발달 단계를 높여야 한다. 그 이유로는 도덕적인 단계 수준에 따라 생각의 깊이와 상대방을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진는 것을 알았으므로 단계를 높여 사람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 단계를 더욱 높혀야한다.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다짐을 말해주겠다. 내가 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치관이나 권리 등의 관련된 책과 같은 것을 읽어보고 성경책과 같은 부류의 책을 읽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전에 했던 언어빚음 수업 속에서 "말 할때 하나님께 하는거라고 생각하며 말하면 말을 예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며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은 도덕발달 단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닮고싶은 사람

당신은 혹시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나는 예전에 닮고싶은 사람이 한 분 있었다. 바로 세종대왕이다. 내가 왜 닮고 싶은 사람으로 세종대왕을 선택하였냐면 바로 애민정책 때문이다. 애민[愛民]은 말 그대로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애민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나는 한 나라의왕이 그 작은 백성들을 생각해주고 사랑해주어이러한애민정책을 펼쳤다는 것이 존경스럽고 닮고싶은 사람 중 1순위였다. 하지만 난 예수님 성경과말씀을 통해 알아가면서 나의 닮고싶은 사람의 1순위가 바뀌었다.

이제부터 내가 왜 닮고 싶은 사람을 세종대왕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했고 왜 우리는 예수님를 닮아가야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까지 알려주겠다. 먼저 시편 146장 7~9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셨다고 나와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까? 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까 정의로운 사람의 부분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그분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어떠한 이득 도 없고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런 이득이 없고 쓸모도 없고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그냥 아무런 댓가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 믿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닮고 싶은 사람을 세종대왕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를 왜 닮아가야하는지를 알려주겠다. 진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불 속에서 타들어가는 고통을 평생동안 지옥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쓴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남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한줄로 표현 하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고 싶어도 닮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닮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따라해도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16~22절) 이 세상에서는 오직 선한 분은 한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다. 그분께서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나와 있고 그 계명에는 살인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또한 한가지 말해드리고 싶은 것이있다. "살인하지말라" 라고 나와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살인은 당연히 안하니까 이 죄는 안짓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상대방 을 향한 분노, 뒷담화, 마음 속으로 욕하는 것들도 살인임을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는 매일 매일 살인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많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드리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천히 빚어가실 것이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 을 닮아 갈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한다. 이 세상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은 역사 속에서 딱 한 분이 있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나는 내가 나약한 죄임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 회개드리며 살아갈 것이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러한 다짐들을 했지만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위해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할 것이다.

# 성결 에세이

# 분리된삶

나는 성결한 삶을 살고 싶지만 정말 정말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결이란 거룩이고 거룩이란 '죄'에서 분리되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이와같이 이해했다. 죄 속에서 분리된 삶을 사는 것. 이 세상 것 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성결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먼저 우리는 현재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회는 문제점이 정말 많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한 인권 개념에 창조주를 빼고 우리가 만든 인권 개념으로 바꾸려고 "그 전 것은 잘못 되었고 이게 맞는거야!"라는 등 이렇게 말을 한다. 원래있던 전통적 구조차제를 뒤바꾸려고 하고, 모든 권력을 뒤집으려고 한다. 이러한 것에는 영화, 예술, 문화 등이 많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된다면 "환경에 따라 선도 악이 될 수 있고 악도 선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심게 만들어 확실하게 나누어져있는 성경적 선과 악의 개념이 흔들리고 모호해진다. 그래서 복음적 절대성을 흔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치않으시는 방향으로 가게되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되게 된다. 이 문화와 예술 속에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 자리를 잡았다. "영화와 같은 것은 하나의 '문화'이니 문화생활이니까 봐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

다면 앞서 말했듯 옳지 않다. 예술과 문화(영화)는 무의식 체계에서 썩은 물이든 맑은 물이든 우리(영혼)가 곧바로 마시는 것이 '예술',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과 문화가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는 영혼의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미디어 같은 것을 볼때 신중하게 선택하고 봐야한다. 현재 우리가살고 있는 세상은 사사기에서 나오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25)

이 말씀처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모더니즘 사회가 사사기에 일어났던 사회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왜 문제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큰 문제이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뀐다. 또한 사람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중에서 옳은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옳은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절대 옳은 길로 갈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세상 속에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든 것에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와 예술을 항상 조심해야하고 눈을 떠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 말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 현재 세상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 성결한 삶을 살아야하는 이유와 성결한 삶을 살기위해서 해야하는 노력

성결한 삶을 살아야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이 행위를 하는 것을 남을 위한 것인가? 아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는 행위이다. 성결 또한 이와같다. 하나님께서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한다.

다음으로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하는 노력으로는 먼저 첫번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현재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인 것 같다. 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라고 생각하고 쓰고 다짐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나는 늘 항상 나의 감정에 내 삶을 맡겨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 친구들을 대할 때도 기분이 안좋으면 생각없이 말을 뱉었던 것 같다.

또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늘 외롭지않고 쓸쓸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가끔 괴롭고 외롭고 쓸쓸했던 것 같다. 늘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늘 나의 주인은 바뀌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말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나는 하나님에 대해, 내 몸에 대해, 생각에 대해, 행동에 대해 성결한 삶을 살기위해 정말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 노력하고 애쓴다는 말 그 자체가 핑계인 것 같다.

나의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나도 모르게 살아가다보니 내 몸의 주인이 내가 되어가고 있고 성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쓰면서 느낀점은 내 노력만으로는 성결을 지킬 수 없음을 느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결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을 삼 속에서 늘 생각한다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음을 느꼈다.

이 성결 에세이를 쓰면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온전히 나를 위해서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 성결한 삶. 곧 죄에서 분리된 삶을 살기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죄에서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만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위한 성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 정직에세이

- 기도문 -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가치기초소양이라는 강의를 듣기 전에 정직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아는 정직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나에게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정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임을 제가깨달았습니다. 다른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나 자신 앞에서 정직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진정한 정직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수업에서 '진지'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는 매사에 진지한 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진지'라는 것은 참된 것을 잡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지함이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까지도 아무 생각없이 진지하지 않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 또한 진지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함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작은 것 같습니다. 예배 속에서 즐겁고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면 집중하지 못하고 한눈 팔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앞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진지함이 한 없이도 부족한 저에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지함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앞에 진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이 드리미학교라는 신앙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저에게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계획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을 때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신다는 생각을 하니 외롭지않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저에게 아주 작은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셔서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한 없이 부족합니다. 수업시간에 예배시간에 졸거나 자거나 딴짓하거나 늦거나 하는 등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제가 제 기준으로 친구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않으려고 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봐도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런 제가 한심합니다. 이 나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나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맘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 맘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 만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세요. 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거두어주시고 빚어주세요.

제가 거리를 두고 있는 친구들과, 제 맘에 들지 않는 친구들에게 잘 대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지고,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고로 정직해지고 싶습니다. 정직하지 못한다면 자칫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정직해지고 싶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천박하고, 나약하고, 교만합니다. 저는 죄. 그 자체입니다. 이런 제가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그 나를 만드신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도와주세요. 한 때 저는 "나중에 나이가 많아져서 그 때 예수님을 믿고 천국가면 되겠지?, 그때 믿어야겠다. 지금은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어찌 그분을 외면할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모님 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 반복되지만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천박한 저를 받아주세요. 정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정직해지고 싶습니다. 코람데오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앞으로 살아갈 때, 저에게 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저를 이곳에서 빚어주세요.

저의 소망은 딱 한가지 입니다. 제가 이 드리미학교에 온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살아계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의 소망은 딱 한가지 예수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그리스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정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심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죄를 짓는다면 더럽고, 역겨워서 토를 할 정도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세요. 제 이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며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주시고, 죄인인 저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 평화 에세이

#### 하나의 온전한 길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상태이지만, 나는 지금이 평화롭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몇달 전까지 '평화로움'이 깨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의 평화가 깨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인질로 끌려가고, 성폭력을 당하고, 고아가 생기는 등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평화라는 그 한 단어가 깨졌을 뿐인데, 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고있다. 우리도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는 아직 휴전상태이며 '평화'라는 단어가 위태롭게 끊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평화'라는 그 한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만약 두 국가가 평화로운 사람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평화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새소리와 좋은경치를 보면서 쉴 때 "아 평화롭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내 생각에는 이것또한 평화 중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치기초소양을 들으면서 수업에서 배운 평화가 내가 생각하던 평화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냐면, '단순히 심리적 평안이나 정치와 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화해 로 원수와도 한 품을 이루는 평화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평화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 한줄이 나의 평화에 대한 개념을 180도 뒤바꿨다. 나는 평화란 정말 간단하고 쉬운 것인 줄 알았는데, 폭력만 없다면 평화로운 것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폭력은 평화롭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고 평화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나에게 평화라는 단어가 엄청 어려워졌다.

나에게 한가지의 고민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까지 보니 평화는 나로서 절대 지킬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들었다. 평화와 나 사이에 벽이 하나 생긴 느낌이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절대 불가능한 일 이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려고 해도 오히려 단점만 보이게 되고,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해도 오히려 미워하게 되는 등.. 더 역효과를 일으켰다.

이후 선생님께서 이런 문장을 보여주셨다.

"인간에 대한 폭력은 인간성에 대한 폭력, 즉 인권에 대한 폭력이다."

"인권에 대한 폭력은 인격에 대한 폭력이며, 그것은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인격에 대한 폭력이다."

"인격에 대한 폭력은 인격의 유일무이한 가치의 원천인 창조주 하나님 의 삼위일체에 대한 폭력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폭력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람도 하나의 소중하고 귀한존재이며, 어떤사람에게는 힘이되는 존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나도 같은 실수를 하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수업과는 별 다른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나는 평화를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원수까지 사랑하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폭력을 하면 안되는 이유와 폭력하지 않는 방법을 깨닫는 수업이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기 보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평화란 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인 하나의 온전한 길이다.

### ---- 빚음 2단계를 마치며

나는 이번 빚음 2단계를 마치면서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먼저 밴드 'Who am I' 수업을 통해 나는 나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맘에 들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잘해주지 못하며, 나는 나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사람임을 깨달았다.

이런 내 자신이 정말 싫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내 모습이 정말 정말 싫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을 해도 사랑하기가 힘들고 오히려더 미워지기만 했다.

또한 내 머리 속에는 죄로 가득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만하면 상대방을 마음 속으로 내 기준대로 평가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고, 어느날 내가 신실한 척하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의 모습이 다 거짓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속이 메스꺼워지고 토할 것 같았다. 그때 내 모습을 다시한번 더 돌아봤는데, 정말 정말 모순적이고 내 일상은 다 죄로 가득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worship', '정직', '정의' 등을 배움으로써 "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 나, 나는 정말 나약하기만 하고 이기적이구나.." 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 그동안 배운 가치를 토대로 드리미학교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동안 배운 가치들이 정말 많이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인 것 같다. 나는 앞으로 드리미학교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한 점과 나약한 점을 부정하지 않고,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친구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고 나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른 친구가 도와주며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같은 가치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다. 상대방을 정죄하며 평가하지 않고, 만약 하나라도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쁠때나 슬플때가 즐거울 때나 화날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먼저 찾는 삶을 살고 싶다.

#### 3년간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딱히 현재 해보고 싶은 것은 없지만 먼저 내가 흥미있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싶다.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 드리미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드리미학교를 졸업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예배가 익숙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큐티를 하는, 하나님을 만나 거룩해진 사람이 되고 싶다.

# 절제에세이

- 절제하는 삶의 원칙 -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격정의 노예가 됨으로써가 아니라 그에 맞섬으로써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육욕에 몸을 맡긴 사람 이나 세속적인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다.

오직 믿음이 있는 영적인 사람에게만 평화가 찾아온다.

'그리스互를 본받아(호마스 아켐피스) 중에서'

#### 내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

- 1, 감정조절 2, 수면시간
- 3. 시간조절 4. 언어사용

5. 충동구매

#### 빚음 활동 중 절제하고 균형잡힌 삶에 도움이 된 활동 '가치기초소양' 정의

#### 절제하는 삶을 위한 나의 원칙

- 1. 분노하는 것은 흔한 감점이지만 죄의 길목이 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점을 절제하며 산다.
- 2. 육욕의 본성에 굴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촘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육욕을 하지 않도록 절제하며 산다.
- 3.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임을 알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을 절제하며 산다.
  -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낭비하지 않도록 무위도식 하는 것을 절제한다.
  - 5.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임을 잊지않고 내 삶을 낭비하지 않으며 절제하는 삶을 산다.

# 공동성결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넹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로 이어 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김민성

# 문제해결 프로젝트 계획서

팀원: 김민성, 박예솔, 전지수, 정푸름

#### 1. 주제

약속 시간에 대한 인식변화

#### 2. 문제개요

아침운동, 수업시간 시작, 기숙사 퇴실시간, 팀 미팅, 버스 출발시간, 기숙사 입실시간, 청소시간 등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시간 딜레이가 생긴다.

#### 3. 의미있는 청중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시간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시간의 중요성을 잊은 사람 등

#### 4.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지식

#### (목표)

시간에 대한 중요성과 시간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1분, 2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임을 사람들의 머릿 속에 각인 시켜 조금이라도 시간 딜레이를 줄이는 것

####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들)

-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에센바흐-
-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 -소포클레스-

#### 5. 문제해결 브레인스토밍

#### 설문지 돌리기

- 시간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 어떤 시간 약속을 가장 못 지키고 있는지? (아침운동, 예배, 모임, 과제, 기숙사 입실/퇴실)
- 상대가 시간을 안지키는 것을 본 적 있는지 (예, 아니오)
- 약속시간을 안지켰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 당신이 생각하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시간 약속을 늦는 이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 어섺블리

- 1번째 어셈블리 : 설문지 공지하기, 응답 받기
- 2번째 어셈블리: 실제 사례 / 설문지 정리& 발표 -> 시간딜레이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 6. 문제해결 방법 정리

- 1. 1번째 어셈블리 때 설문지를 돌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 구체화하기
- 2. 받은 설문지를 정리 후 2번째 어셈블리 때 발표자료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문제의 심각성, 현 상황 알려주기
- 3.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과, 시간 약속을 잘 지켰을때 우리에게 오는 이익을 정리하여 시간의 중요성과, 개선방향을 설명해주기
- 4. 시간과 관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시간에 대한 문제점 인식 변화시키기
- 5. 공지나 중요한 일정 전 미리 공지해주면서 시간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이후 문제해결 전과 후 비교하며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기(어셈블리)

#### 7. 액션 플랜

- 1번째 어셈블리 때 설문지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과 관련된 문제 알아보기
- 받은 설문지를 정리(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용하여 통계 내기)
- 2번째 어셈블리 때 발표자료와 같은 것(ppt, 카드뉴스 등)을 만든다. (학생들에게 시간의 중요성,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자세히 알려주기)

#### 8. 역활 분담

설문지 만들기

: 모둠원 모두

받은 설문지를 정리, 통계정리하기

: 민성

2번째 어셈블리 때 발표자료와 같은 것(ppt, 카드뉴스 등)을 만들기, 발표하기

: 모둠원 모두



드리미학교 국토순례 vlog



# 3p 창의활동 계획서

#### 1. 활동명

1, 500	Dilata dan
활동명	Bibleader
팀원	김민성
	-목적-
	본 활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할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배우는 활동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만약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을 때
개요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면 사람들에 의해, 주변환경들에
	의해 다시 죄 속으로 빠질 수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과 리더가 무엇인지 배워,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속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리더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갈지를
	배운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한
	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들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배워나간다.
의미있는 청중	그리스도인,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리더십을 갖추고 싶은 사람

#### 2. 자료 & 재료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 ,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배우다' '누구나 한번은 리더가 된다' , '박정희의 리더십'

#### 3. 내용 및 활동

#### 내용 및 활동

- 1. 세상 속 리더와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운다.
- 2. 성경과 책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와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운다.
  - 3.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본다.
    - 4. 그 인물과 나와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부족한 점들을 찾는다.
      - 5. 찾은 후 그 간격을 점차 줄여가기 위해 노력한다.

(ex: 계획표를 세워 리더십을 늘리기 위해 오늘은 어떤 어떤 것을 한다~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루 계획표를 세워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내 존재 자체는 아무런 가치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치있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나는 배웠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점점 조여온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공동체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렇기에 나에겐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라 는 같은 길을 추구하며 살아야한다는 것을

